

오리의 주요질병 및 예방대책

강문일 전남대 수의과대학 교수

기생충성 및 기타질병

오리를 비롯한 모든 가축은 사람과 관리자가 부여하는 절대적인 사육조건 아래서 성장한다. 때문에 많은 질병이 사람에게 의한 사양관리미흡이나 불량상태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주 간단한 이 사실이 야외에서 의외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질병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며 오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를 조절하는 사람의 손길가운데 어디엔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관점에서 질병을 이해하려한다면 특히 같은 질병의 재발위험을 훨씬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글에서는 오리사육과정중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닌 곰팡이 기생충독소 대사 이상상태 등에 의한 생산성 저하질병을 살펴보기로 한다.

◆ 콕시듐증

주로 1-8주령 사이에 소화기에서

이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기생충성 질병이다. 이들 기생충성 질병은 일반 세균이나 바이러스질병들과는 달리 그들의 생활사가 복잡하고 전파방법이 다르며 진단을 위한 혈청학적 진단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유효한 소독제나 방역법이 많지 않은 등 여러 면에서 다르다.

① 병원체

현재로서는 아이메리아, 웨노넬라, 타이제리아 등의 콕시듐이 관여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아이메리아 종류가 상재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임상증상 및 육안적 소견

감염 콕시듐원충의 종류나 감염량에 따라 매우 다른 임상경과를 보이거나 일반적으로 콕시듐증의 병원체인 타이제리아에 감염되면 식욕감퇴, 체중감소, 쇠약, 침울이 있고 폐사율이 심할 경우 70%에 이르기도 한다.

때로는 항문근처의 출혈성 오염물이 묻어 있는채 갑작스레 죽어있는 경우도 있다.

해부를 해보면 소장점막의 윗 혹은 중간부분에서 심한 출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출혈성 장염은 감염된 콕시듐의 종류와 감염정도에 의해 매우 달리 보인다.

육안적으로 구별해야 할 질병으로는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등이 있다.

③ 진단 및 예방

분변을 검사하거나 출혈을 보이는 장 부위를 채취하여 감사함으로써 그리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다.

콕시듐증은 오리가 어렸을 때 잘 걸리는 만큼 성장장애는 물론 사료효율의 감소등으로 그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질병이다.

따라서 이들 병원체들이 오리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예방조치만이 효과적일 수 있다.

파스튜렐라 아니티페스티퍼 가멸증같은 세균성 질병에 걸릴 경우 콕시듐증은 복합감염으로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좋은 위생환경과 사료내 항생제제의 예방적 첨가가 권장된다. 치료수단으로는 설과제를 음수로 투여하기도 한다.

◆ 아스퍼질러스병

오리뿐만아니라 대다수의 가축과 사람에게 주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곰팡이성 질병이다.

① 병원체

썩은 곡류나 채소류를 비롯 흙속에 널려있는 곰팡이 일종인 아스퍼질러스인데 이 곰팡이류중 후미가투스과 플라버스라는 종류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곰팡이들은 포자형태로써 쉽게 날아다닐 수 있어 특히 한정된 축사내 일 경우 오리의 기낭과 호흡기를 침범하곤 한다.

오염된 자리것이 가장 흔히 오염원이 된다. 특히 어린 오리에게 이들 곰팡이가 오염된 사료나 음수시 이들 병원체로부터 분리되는 독소에 의한 피해도 간혹 일어난다.

② 임상증상과 육안적 소견

임상 경과기간에 따라 급성 혹은 만성형으로 나누는데 급성형은 주로 3주일이내의 오리새끼에서 발생하며 높은 이환율과 폐사율(10% 이상)이 특징적이다. 병원체 곰팡이에 오염된 깔짚에서 일어난 먼지가 기도로 들어와 발생하는데 감염오리의 임상증상은 곰팡이의 감염량이나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헐떡거리면서 쇠약에 빠진다. 크기가 다양하나 주로 1mm정도 크기의 외관상 황회색 결절들이 기낭과 폐를 비롯 장간

막,콩판,간 등에 다수 흩어져 보이고 여러 결절이 뭉쳐 있는 경우도 있다.

병변이 더욱 진행되면 쇠약이 심해져 가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들 병변은 무색의 기낭이 혼탁해지고 비후가 심해진다. 만성형은 주로 나이가 들거나 종계 오리군에서 발생하며 폐와 기낭에 염증성의 삼출물이 모여 치즈같은 물질들로 채워진 녹회색 결절들이 더욱 커지고 비후된 기낭벽에 같은 색깔의 곰팡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곰팡이독소에 의한 중독증이 발생시 급성폐사와 산란율의 저하가 보이며 감의 종대와 출혈 특히 담관의 증식이 잘 나타난다.

한편이들 병원체 곰팡이들은 부화동안에 난각을 통해 침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화시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대개의 조류에서 본 병에 감염된 개체에 따라서는 혈류를 통한 뇌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오리의 경우 그 발생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

③ 진단 및 예방

확진은 특징적인 해부소견과 아울러 실험실내에서 곰팡이를 분리동정하여 내릴 수 있다. 비교적 이들 곰팡이들은 일반곰팡이배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분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가장 빠른 간이 진단법으로는 기낭이나 폐에 생긴 결절을 조심스레 칼로 한 부분을 채취하여 20% 수산화칼륨용액

한방울을 떨어뜨린 유리슬라이드에 섞어 현미경 아래에서 검사하는 것이다.

이들 방법은 가까운 각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검물을 의뢰하면 손쉽게 써비스 받을 수 있다. 독소에 의한 중독증이 의심될 경우 사료분석을 대학가축위생연구소 사료검사소 같은 공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치료는 치료약제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방법에도 문제가 많아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일단 발생확인된 개체는 선발도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위생관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곰팡이가 자라거나 오염될 수 없는 사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깔짚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며 환기를 개선시켜줄 때 그 발생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부화기는 철저한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집란도 자주하여 오염기회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사료통과 음수장치를 매일 세척해주고 가능하면 소독해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비온 후 운동장이 배수가 잘 안되는 곳도 곰팡이가 잘 자랄수 있는 곳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본 병 역시 밀사 등 환경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코티손 등 오리체내의 면역억제약물을 사용시혹은

영양상태가 불량하면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아밀로이드증

아밀로이드증은 오리에게 흔한 질병 중 하나이고 특히 1-2년생의 종계 오리군에서 다발하고 있다. 그 발생률은 보통 5-10%이나 많은 경우 30-40% 이상될 때도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 질병은 오리군의 각종 생산지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쳐 심한 경제적 손실을 주기도 한다.

① 병원체

아밀로이드라는 일종의 당단백질이 병원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진 최종산물로써 실질적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예컨대 엔장균에서 분리된 독소나 살모넬라균의 정제물질 등이 오리에게 아밀로이드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② 임상증상 및 육안적 소견

복수가 차서 복부가 축 처지는 것 외에 뚜렷한 외부증상을 보기 힘들다. 부검을 해보면 간이 마치 반숙한 것처럼 보이면서 커져 있고 지라도 역시 커져 있으면서 출혈이 있고 가끔은 깨져 있을 수 있다. 심장의 안쪽판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황갈색 혹은

황적색을 띤 장벽의 비후도 볼 수 있다.

③ 진단 및 예방

육안적 소견과 병리학적 검사로 확진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예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질병은 종계오리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폐사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앞서 열거한 세균에 의한 세균혈증(세균이 혈액내 퍼져 있는 상태)이나 탄수화물 대사이상에 의한 결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오리들이 세균감염이나 영양상태 이상에 빠지지 않도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수란관염

이 질환은 파스튜렐라 아나티페스티 퍼감염후 회복된 오리가 산란개시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상구균, 파스튜렐라 아나티페스티퍼, 대장균 등에 감염된 육성 암컷오리에서 다발하는데 특이한 증상없이 갑작스레 죽은 채 발견되곤 한다.

이를 부검해보면 수란관내 치즈같은 물질이 들어있고 복막염, 붉은 반점이 표면에 흩어져 있고 크기도 커져 있는 지라 등을 볼 수 있다.

병변이 형성된 수란관내에서 세균에 의한 패혈증에 걸린 결과이며 문제는 감염오리가 성성숙이 될 때 까지 수란

관내에서 연쇄상구균, 파스튜렐라 아 니티페스티퍼, 대장균 등이 주로 분리 된다.

이 발생은 어린시기에 세균에 의한 패혈증에 걸린 결과이며 문제는 감염 오리가 성숙이 될 때까지 수란관염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 오리 도살시 수란관염이 발생한 개체는 도체폐기의 한 조건이 될 수 있다.

◆ 비특이성 장염

산란오리중 영양상태가 분명히 좋은 데도 급성폐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들 폐사체를 해부해보면 소장하 부에서 치즈같거나 출혈성으로 보이는 자염소견을 볼 수 있다.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앞서의 수란관염과 구별해야 한다. 항생물질제제가 비교적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예방을 위해서 사료내 항생제 첨가를 할 수 있다. 지역이나 농장에 따라 산란중인 오리에서 큰 손실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품종에서 피해가 크다.

◆ 오리의 기본적인 위생관리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오리에게 병원체를 옮기는 오염원과 그 감염경로를 잘 차단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예방적 처치를 준수하는 것이 질병방제의 기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리라는 동물에 병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농장에 알맞은 농장내 동별 사육단계와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부화, 육추, 산란등은 물론 각동간이 최대호 격리되도록 해야하며 특히 종계사육동은 다른동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인력, 차량, 물품등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일방통행토록 해야 하며 산란동등 접근 금지구역 설정하여 지키도록해야한다.

산란동과 시판육성오리동이 가까이 배치해야할 경우 반드시 발람방향이 산란동에서 시판오리육성동쪽으로 불도록 배치해야 한다. 두말할 필요없이 각 동에는 가능한 새로운동을 지을때는 야생조류 등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사육시설은 환기가 적절치 못하여 실내 먼지가 과도히 생긴다거나 셋바람이 샌다거나 혹은 깔짚을 자주 안갈아주어 축축해 있다거나하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할 뿐만아니라 찢릴수 있는 시설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람은 가장 위험한 병원체의 전염원이므로 농장내에서는 그 활동구역을 꼭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농장내 출입시는 일회용 혹은 농장전용의 장화와 까운 등을 착용케하고 사육시설의 안팎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이동시 밝고 다니도록 한다.< 완결 >